이렇게 들었다

깨달음

"불법 구하는 이 빨리 깨닫는다"

음력 12월 8일은 성도일이다. 성도일은 석존이 범부의 굴레를 벗고 부처님이 되신 날이요, 구속과 얽매임에서 해탈과 열반의 문을 활짝 연 날이다. 불자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절을 찾아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행사보다는 각자 나름대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승가는 승가대로 재가자는 재가자대로 욕심으로 가득찬 마음을 비우고 자기 속의 부처를 발견하기 위한 작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성도일의 참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법을 통해 깨달음의 문을 여는 것이 최상의 공양"이라고 말씀하셨다. 깨달음에 대한 경전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늘 지성으로 행동하며 꾸밈이 없으면 그 원이 채워져 결여됨이 없을 것이며, 온갖 바른 덕을 늘려 그릇된 행위가 없고 불법을 사랑해 구하는 사람은 빨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반야삼매경〉

▨모든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은 꽃과 열매가 된다.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므로 보리(菩提)는 중생에게 딸린 것이다. 중생이 없다면 보살은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화엄경〉

▨거룩한 가르침의 비는 처한 곳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이 비를 맞는 자는 그것을 작은 무리로 모아 조직과 생활공동체로 모아들이고 마침내 자신이 깨달음의 대양에 들어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물과 젖처럼 융합해서 마침내 화목한 형제애로 뭉친다. 이래서 바른 가르침은 완벽한 조직의 기본 조건이고, 사람들이 서로 인내하고 적응하면서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펴주는 빛이다. 〈팔리 증지부〉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즐거움을 깨닫고 괴로움을 깨달으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것을 깨달으면, 그는 이 깨달음으로써 덧없음을 관찰하고 흥하고 쇠함을 관찰하며, 말함을 관찰하고, 버림을 관찰한다. 그런 뒤에는 이 세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세사에 끄달리지 않은 뒤에는 곧 피로하지 않고, 피로하지 않은 뒤에는 곧 열반에 들어 생이 다하고 범행(梵行)이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 〈중아함경〉

▨약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절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십이장경〉

▨삼보를 공양 예배하며 찬탄 수희(隨喜)하여 부처님들께 권청(勸請)하면, 삼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후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해서 능히 무상의 깨달음을 구하게 된다. 또 불·법·승의 가호를 받는 탓으로 업장을 없애고 선근이 퇴전(退轉)치 않는다. 〈기신론〉

▨보살은 응당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마음을 집중하여, 불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해야 하느니라. 어째서 그런가? 이 귀명(歸命)의 공덕의 힘으로 무량한 선근을 성취하게 되며, 또 유정(有情)으로 하여금 모두 불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건 이것을 염할 때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일 뿐, 내가 어느 유정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도로 끌어들이고, 어느 유정에게는 박하게 대해 이를 배척하는 일이 있겠는가. 불·법·승 삼보를 염치 않는다면, 늘 노여움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보살장정법경〉

▨온갖 중생을 관찰하건대, 보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까닭에 도로 악도에 떨어져 윤회를 받게 된다. 만약 익히 깨달아 길이 보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필코 불환과(不還果; 뒷걸음질 치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지)를 얻어 이 세상에 다시 와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본사경〉

독자의 소리

관람료관리위 구성해야 승려 노후복지 우선 활용

불교발전에 쓰여져야 할 사찰관람료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만큼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가칭 '관람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람료는 불교발전을 위한 포교와 복지사업에 쓰여져야 한다. 무엇보다 스님들이 걱정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복지대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교종합병원과 종합대학 설립, 일간신문 창간, 해외포교에 쓰여져야 한다.

관람료가 건설적으로 사용된다면 한국불교는 계율이 살아나는 청정불교, 수행에 전념하는 불교, 사회에 봉사하는 불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최광호〈경북 경주〉

무창포에 '모세의 기적' 중앙일보 표현 신중해야

1월 8일자 중앙일보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무창포에 철도청이 관광열차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무창포 모세의 기적 관광열차'라는 제목을 붙였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갯벌을 드러내는 자연현상을 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눈에 거슬린다. 더욱이 특정종교의 인물과 신화를 갖다 붙였다. 최고의 권위지임을 자처하는 신문의 이같은 처사에 아쉬움을 전하며 신중한 기사쓰기와 편집을 당부한다. 아울러 불자들의 언론감시 활동이 요구된다.

춘일〈스님, 서울 양재동〉

화장은 사회적인 요구 불자들 솔선수범 해야

많은 사람들이 묘지 부족과 호화묘지 조성 등의 이유를 들어 매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본인과 가족의 화장(火葬)에 대해서는 머뭇거린다. 최근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5.2%가 화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불교인의 화장 찬성률이 기신교인이나 천주교인보다 낮았다.

불교에서는 다비하는 장묘풍습이 있다. 그런데도 다른 종교인에 비해 화장을 덜 선호한다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화장은 사회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불교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강영구〈서울 목동〉

조계종 대참회법회로 상처치유-화합 다지길

조계종사태는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 그러나 대다수 스님들과 불자들은 여전히 수행과 포교에 열중하고 있다. 사태의 파장과 충격은 컸지만 치유하고 화합하는 힘이 더 크다고 믿는다. 불교는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총무원장이 뽑히면 참회대법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어찌 됐는지 소식이 없다. 참회연비의식을 했다는 기사를 봤지만, 그것으로 국민들의 실망을 씻어주지는 못한다. 조계종의 모든 사찰에서 동시에 참회법회를 봉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불교 건설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어떨까.

김영우〈서울 흥제동〉

목탁소리

조계종 추가경정예산 11억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종단수호 및 호법활동 경비 11억원.' 21일 개회된 조계종 제138회 임시종회에 제출된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항목이다. 종단수호 및 호법활동 경비로 정리된 이 항목의 내역은 종단사태로 인해 소요된 지출금이다.

총무원은 종단사태로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썼던 것이고 중앙종회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승인했다.

분규 와중에 총무원측이 11억원을 썼다면 정화개혁회의도 그만큼은 썼거나 더 많이 썼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시말해 두달남짓 진행된 분규에 20억이 넘는 정재가 쓰였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쓰여질 것이란 얘기다. 총무원은 금년예산에 청사 보수비 9천만원을 편성했고 정화회의측도 조직 운영비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분규 자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불자들의 시주돈이 탕진됐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정화개혁회의측이 조계사 주변에 깔아 놓고 지급하지 않은 외상값도 상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돈의 액수보다 신심있는 불자의 가슴에 맺힌 한탄의 무게가 더 안쓰럽지 않을 수 없다. 조계사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철공소, 목욕탕 등의 업주들의 받지 못한 의상값을 합하면 모두 5천만원을 넘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들은 업주들끼리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마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돈 때문에 재가신도인 업주가 승가를 법에 고발해야 하는 불경스런 일도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조계종 분규는 많은 교훈과 상처를 남겨 주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바로 귀한 삼보정재의 탕진이다.

"차라리 그 돈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혹은 종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승가 교육기관의 지원금 등으로 쓰였다면 얼마나 큰 효과를 얻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ytlim@buddhapia.com)

제언

의연스님
부여 무량사 주지

"문중-재정 일원화 하자"

'선교육 후득도'로 수계방식도 전환

한국불교의 뛰어난 장점으로써 하나는 출가의식이 크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오래된 수행의 전통과 실질적인 수행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결제기간에는 매일 10시간 이상을 참선 정진하고, 또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수행하는 대다수의 스님들은 출가의식이 매우 큰 원력출가자들이다. 이처럼 한국불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한국불교의 파행과 질곡의 역사는 주지하다시피 54년 이후 여섯 차례의 이승만정권의 정화유시에서 비롯되었다. 역대 독재권력은 자기 모순 때문에 각종 문화정책과 행정적 소외, 여타의 불교관계악법 등으로 불교의 자주권을 말살했다. 또 불교내에 끝없이 분열책동을 조장하고, 이에 이해관계에 따라 뇌화부동하던 권승들은 불교의 사회적인 위상보다는 개인이기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분란을 야기했고, 종단내에 불신과 반목, 갈등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다보니 은사와 상좌가, 같이 공부하던 도반끼리, 문중간에 담합과 반목이, 문중내에서도 각종 알력이 배태되고 어제는 뜻을 같이 했지만 내일은 서로 반대파가 되어 싸워야만 하는 현실이다.

조계종단의 모든 문제는 문중제도와 사찰재정, 득도교육체계 부재에서 파생되고 있다.

작금의 종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정말 살맛나는 종단을 건설할 수 있는 대안을 우선 거론해보자. 첫째, 문중 일원화, 둘째, 사찰재정 일원화, 셋째, 득도과정 체계화.

첫째, 현재의 문중제도, 문중관념은 소아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 문중이기주의일 뿐이다.

문중을 하나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수계자는 그대로 두되 지금부터 새로 득도하는 모든 출가자를 한 분의 은사로, 즉 종정스님 한 분으로 국한한다. 은사와 상좌로서의 여러 관행을 종단이 대신한다.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나면 문중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고, 문중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찰재정 문제인데, 모든 사찰의 재정을 중앙으로 일원화하면 소위 말하는 잿밥싸움은 끝날 수 있다. 사찰의 재정을 일원화하여 그 자본으로 수익사업과 교육사업, 나아가 사회복지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또 모든 스님들께 일정액의 보시를-곧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인사인력관리를 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사찰에도 형편에 맞게 수용비를 재분배한다. 스님들의 현실생활이 보장되면 노후보장도 자연히 해결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단위 사찰운영도 그 사찰의 사정에 따라서 주지뿐만 아니라 총무나 포교사, 또는 사무장 등의 소임자도 중앙종무기관에서 임명하고 관리해서 주지의 전횡이나 독단을 없애고 공정한 종무행정을 기한다.

셋째, 득도과정의 체계화인데, '선득도 후교육'의 수계방식을 바꿔 먼저 교육을 이수케 하고 수계를 한다.

출가하는 사람들을 최소 4년간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케 하여 학문과 수행과 실천에 있어서의 자질과 역량 등 기본 소양을 함양케 하고, 그런 후 재차 출가의지를 확인하고서 사미계를 수지케 한다.

만약 기본교육과정을 마쳤으나 출가의지가 퇴색하고 수계득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단내에 포교부분(포교사)와 종무 행정부분(사무장)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역자 제도'를 두어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교역자들도 종단에서 대기업 수준의 급료를 주면서 인사인력관리를 기한다. 그리고 사미계를 수지하면 예를 들어 대략 세분야의 전문과정, 곧 선학전공, 경학전공, 포교행정전공 등으로 구분하여 최소 2년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케 한 뒤 비구계를 수지케 한다.

선방에 다니려면 선학을 전공한 자만이, 만약 행정 소임을 보다가 선방에 가고자 할때는 선학부분의 재교육과정을, 선방을 다니다가 행정소임을 보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포교행정부분의 재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소임을 맡게 한다.

그 누구도 질곡에 빠진 종단현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어느 때보다도 의식의 각성과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종단의 어른스님들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스님들, 종무행정을 관장하는 주지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중들은 냉소적인 태도를 지양하며, 출가자들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승가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60명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중국어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40명 ■통신20명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률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률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2월 2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2월 22일까지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국립한의과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의 예 과	5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양생강복학과	5년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약 학 과	4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제약학과	4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약리학과	5년	◇ 건강진단서 1통
침구학과	5년	◇보증서 1통
추나학과	3년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간호학과	2년	◇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의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2, 제약공장, 교육병원10,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